

국민성장펀드가 지역중심 경제구조 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 이덕원 금융위원장 부산광역시를 방문, 전재수 시장과 지역 내 첨단산업 영위 대표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회사 등과 간담회 개최
- ✓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6개월간 지방에 46.8%의 자금(6.5조원)을 승인 하였으며, 5년간 150조원 공급규모 중 40% 이상을 지원할 계획

1. 간담회 개최 개요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26.7.3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내 첨단산업 영위 대표기업과 지역 벤처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스타트업 기업, 지역 내 벤처캐피탈 등 투자회사 등을 만나 부산 및 동남권 지역의 첨단산업 현장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한 정책금융지원 개선방안을 고민하였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1일 새로 취임한 전재수 부산광역시장도 참석하여 지방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모색하였다.

< 국민성장펀드 부산지역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6.7.3일(금) 오전 9시 / 부산 유라시아플랫폼
-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산광역시, 지역 금융권 및 산업계 등
 - (정부/지역) **이덕원** 금융위원장,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 (금융권)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곽성욱** 시리즈벤처스 **정성재** BNK벤처투자, **김정현** KRUN벤처스 대표
 - (산업계) 대한항공, 크리스틴컴퍼니, 한국정밀소재, 레디로버스트머신, 소셜빈, 피알지 에스앤티, 타우메디칼 등 지역 소재 기업
- **주요내용** : 지역내 유망 첨단기업 소개 및 지역소재 운용사 투자현황 설명, 투자 및 기업 경영과정의 애로사항 청취 등

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지방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자본 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정보의 불균형과 생산시설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터운 장벽으로 인해, 지방으로는 자본이 스스로 찾아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달에는 정책금융기관과 대전에서 「정책금융 동행」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맞춤형 금융상담도 제공하였다”면서, “그 때 약속한 바와 같이 지방에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극 3특 전략과 연계된 지방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창업·상생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보육 플랫폼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부산지역 방문과 관련하여 이억원 위원장은 “부산과 동남권 지역은 이미 세계 2위의 환적항인 부산항을 보유한 ‘해양도시’로서 우수한 항만 인프라와 MRO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발전의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라는 강점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뒤이어 “부산이 가진 이러한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부산이 가진 강점에 더해 ‘첨단산업 대표기업 육성’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라는 새로운 자산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국민성장펀드의 40%를 지역에 투자하는 목표에 더하여 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를 신설하여 매년 2,000억원씩 5년간 1조원의 자금을 지방기업에 집중투자한다. 이 펀드는 7월중 3개 내외의 운용사를 선정하여 하반기부터는 자금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 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지방소재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지역벤처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억원 위원장은 “아직 국민성장펀드의 21개 승인사업 중 부산지역 기업이 없는데, 부산지역이 미래형 운송수단, 방산산업의 중심지인만큼 조만간 2차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미래모빌리티 및 방산지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부산지역에도 국민성장펀드 승인 건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3. 간담회 논의 주요내용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부산지역에 소재한 운용사와 대표 기업(대한항공), 지역벤처기업의 사업현황 발표와 애로사항 논의가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은 “민선 9기 시정의 출발점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부산을 찾은 금융위원회에 감사”한다면서, “‘다시 뛰는 부산’은 기업이 부산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며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앞으로도 중앙부처·금융권과 협력하여 지역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부산 및 창원 소재 벤처캐피탈인 시리즈벤처스 곽성욱 대표는 “지역에는 자본공급을 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운용사도 부족하지만, 자본과 산업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부족”하다면서,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복합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지역의 금융지주사인 BNK계열의 BNK벤처투자는 “지역전용 세컨더리 펀드가 조성된다면 지역 VC/AC의 재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투자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부산(김해) 소재 첨단산업 대표기업인 대한항공은 “항공운항 관제, 무인기, MRO 등의 사업은 AI와 접목하면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면서, “항공 Physical AI 및 지능형 전장관리 OS 등 무인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학계 및 생태계 협력, R&D지원 등을 통해 미래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대·중·소 상생협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도 “최근 부산은 대규모 벤처펀드의 결성과 창업인프라 확충을 통해 아시아 대표 벤처·창업생태계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면서, “부산지역의 성장이 전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지역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의 구조를 지역중심으로 전환하여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이뤄내려면 지역의 첨단 산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벤처 생태계를 자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 지역 첨단생태계 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재 준비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	책임자	과 장	강성호 (02-2224-2010)
		담당자	사무관	김준환 (02-2224-2016)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	담당자	국 장	김정구 (02-787-5001)
			팀 장	이 정 (02-787-5002)

